

2009년 10월 19일 오후 7시15분~

<종로주진리 교회>

사랑하는 나의 진리의 신부들이여.

내가 너를 진정 사랑하고 사랑하도다.

내 사랑하는 자여.

이 마지막 역사에 따라온다고 수고가 많다.

따라온다는 것만으로도 힘든 것이다.

이 힘든 길 낙오되지 않고 잘 따라와주니 내 마음이 기쁘다.

내 사랑하는 자여, 그런데 언제까지 따라만 올 것이냐.

치고 나가 내 역사의 중심자 되어야지. 이제는 본전만 하면 안된다. 본전만 하면 뒤처지는 것이다. 아주 많이

뒤처지는 자가 되고 만다. 내 사랑하는 자여. 너희가 감당할 내 사역이 있다. 너희만이 내게 해줄 사역이 있다.

바로 전도다. 너희가 감당할 생명이 있다. 전도하라. 엘리트들 세우라. 그냥 엘리트 깔짝깔짝 말고 무리로 세워라.

너희는 할 수 없다 말하지만 나는 나 주 예수는 할 수 있도다. 그러니 해라. 제발 해다오. 내가 너를 믿고

내 발걸음 돌린다. 내가 믿는다. 너 믿는다. 나 실망시키면 안 된다.

절대 선생과 하나되라. 또 나와 선생과 하나되듯 한민이, 한민목사와 절대 하나되라. 내 기름부은 자, 내가 사

랑하는 자, 또 믿음직스러운 자, 생각하면 마음 든든한 자다. 절대 하나되고 열정있는 자 붙어서 같이 하자.

사랑한다. 나의 진리들이여. 안녕. 사랑해.